



3면
"지역 홍보 상생 협력 한마음"

전주매일

2023년 6월 5일 월요일 (음 4월 17일) 제327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청년 창업 생태계 구축 도내 대학과 연대 강화

제2차 LINC 3.0 대학 창업교육 혁신 포럼

지역사회 등 참여 주체별 역할 · 공동 실행방안 모색
25개 대학 창업교육센터 글로벌 인재 육성 협약 체결

전북도가 세계적 청년창업 지역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도내 대학 등과 함께 연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전북도는 (사)한국창업교육협의회와 함께 대학창업교육 관계자들의 네트워킹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전주 더 메이 호텔에서 '제2차 LINC 3.0 대학 창업교육 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지난해 정부 인수위의 국정과제로 대학 중심의 창업생태계 구축이 발표됨에 따라 지역창업 허브로서 도내 대학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제2차 LINC 3.0 대학 창업교육 혁신 포럼'은 전북도와 한국창업교육

협의회,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광주광역시, 전주대학교, 원광대학교, 광주대학교 등 81개 창업지역선도 대학들이 참여하는 등 민·관이 함께하는 포럼으로 꾸러졌다.

포럼에서는 글로벌 창업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사회와 대학, 정부, 기업 등의 참여 주체별 역할을 논의하고 공동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활발한 토론의 장이 열렸다.

김관영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청년 창업 활성화와 생태계 구축을 위해 도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투자 네트워크 마련과 창업기반 구축, 성장 주기별 지원 체계화, 1조원 펀드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업교육협의회 고혁진 회장은 기초 강연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의 가속화에 따라 지역대학과 지자체가 서로 협력해 대학이 글로벌 창업인재의 양성기지로써 대학이 지역 일자리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혁신 포럼 1일차에는 개회식과 함께 25개 대학 창업교육센터의 글로벌 창업인재 공동육성에 관한 업무협약(MOU)과 더불어 기초강연과 좌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2일차인 3일에는 '지역가치창업 우수사례 발표'와 더불어 '지역가치창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한편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지역대학들이 창업 공간·장비 지원,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 구축 등 대학 기반 실천·기술창업에 역동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 창업 생태계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재훈 기자



지난 2일 전주 더 메이 호텔에서 열린 '제2차 LINC 3.0 대학 창업교육 혁신 포럼'에 김관영 도지사, 원광대학교총장, 전주대학교총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청년 창업 활성화·생태계 구축에 힘 모으기 위해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설렘-울림-어울림... 무주산골영화제 개막

넥스트 액터 소개
개막작 상영 등 진행
26개국 88편 영화 상영



지난 2일 무주둔나무운동장에서 열린 제11회 무주산골영화제 개막식.

무주에서 펼쳐지는 초여름의 낭만 영화제 제11회 무주산골영화제 개막식이 무주둔나무운동장에서 지난 2일 뜨거운 환호 속에 열리며 5일 동안의 낭만적인 영화 소풍이 진행되고 있다.

개막식에는 김홍준 한국영상자료원장 김조광수 영화감독 겸 서울프라이드영화제 집행위원장, 정상진 옛나인필름 대표, 광주극장 김형수 이사 등 각 영화제 및 영화관련 기관장을 비롯해 올해 '창 색션 심사위원'을 맡은 김이석 동의대학교 교수 신수원 영화감독, 심재명 명필름 대표, 송경원, 차한비, 한창욱 영화평론가 등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더불어 조예슬·임오정·배두리·권철·미아게 쇼 감독과 배우 변요한 권유리, 현우석, 오우리, 방호린 정이주 등이 참석해 열 한 번째 무주산골영화제의 개최를 축하했다. 개막식 사회를 맡은 배우 박철민

김해나는 개막 인사와 함께 별과 바람, 숲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무주산골영화제의 열 한 번째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했다.

이어서 황인홍 조직위원장(무주군수)이 무대에 올라 자리를 가득 메운 관객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다음으로 무대에 오른 유기하 집행위원장은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멋진 선물이라는 뜻 깊은 소견을 밝히 큰 박수를 받았다.

무주산골영화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넥스트 액터' 소개 순서에는 올해 선정된 배우 변요한이 직접 출연한 셀프 트레일러가 최초로 공개되었다.

이어 올해 '창 색션 심사위원들이

객석에서 만세 삼창을 외치며 개막을 축하해 눈길을 끈 가운데, 심사위원 대표로 심재명 명필름 대표와 송경원 영화평론가가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전했다.

개막작 '버터넛과 존재하기' 상영 및 라이브 공연에서는 영화에 출연한 뮤지션 '곽푸른하늘, 최고은, 주소영, 불나방스타쏘세지클럽'이 영화와 개막식 무대를 오가며 자신의 음악을 라이브로 들려줘서 관객들과 낭만적인 시간을 만들었다.

한편, 열까지 열리는 제11회 무주산골영화제에서는 총 26개국 88편의 영화와 함께 무주의 다양한 실내외 공간에서 특별한 문화 이벤트를 만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도민과 함께하는 '새만금 수질보전활동' 본격

전북도, 지원사업 4개 단체 공모 선정... 하천 정화 등 활동 돌입

전북도는 공모를 통해 '도민과 함께 하는 새만금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대상 단체 4곳을 선정하고, 사업비 교부해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북도에 사무소를 두고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새만금 상류 하천에 대한 민간주도의 자발적 수질보전활동을 유도해 새만금 수질개선에 기여하고, 새만금 사업에 대한 관심과 환경보전 의식을 높이고자 지난 2020년부터 추진했다.

지원단체는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평가단의 서류 및 현지심사와 전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선정됐다. 선정된 4개 단체에는 사업계획에 따라 각각 2,000여만원 인원의 사업비(총 8,000만원)가 지원된다.

주요활동 내용은 △하천의 수중 및 수변의 쓰레기 수거 등 비점오염원 정화활동,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 정화 및 꽃길조성, △하천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수질개선 및 비점오염 저감 등 환경보전 의식 교육·홍보 활동 등이다.

실례로 일부 단체는 하천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마을주민들과 수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꽃을 식재해 또 다시 반복적으로 투기되지 않도록 주위 환경을 정비했다.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와 분리배출, 불법소각 금지, 과도한 비료사용 자제, 생활속 미세먼지 줄이기 등 농촌에서 실천할 수 있는 비점오염저감과 환경보전에 대한 홍보 및 교육도 병행했다.

전북도는 부명한 사업비 집행과 내

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8월에 단체의 사업수행 현황을 중간 점검할 예정이다. 또,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의식교육과 함께 정화활동 후의 사후관리도 독려할 계획이다.

수질보전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민간단체 관계자는 "주민에 대한 환경교육과 환경 정화활동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주민 인식변화와 참여를 이끌어 내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재용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위한 민간단체의 노고에 감사하며, 단체들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새만금 유역이 도민의 애정어린 환경친화적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현충일로 6일자 신문 쉽니다.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